



망연자실 16일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어발식 전선 연결…누전·과부하 가능성

발화 점포, 7곳과 함께 전기 사용…원인 밝히는데만 3주

수족관 전기 가동 과부하 원인 추정…피해액 100억 넘을 듯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전기 누전과 함께 과부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 사용중이던 배전반은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고, 8개 점포에서 이곳에 20여 개의 전선을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수경찰은 16일 불이 시작된 한 점포와 주변 점포 7개가 함께 전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이 처음 발생한 곳에서 여러 개의 전기 배선이 함께 연결된 임시 배전반이 발견되었고, 이 임시 배전반에는 주변 8개 점포의 전기 배선이 함께 연결돼 있었다. 이 배전반에 부착된 콘센트에는 점포마다 2~3개 전선이

문어발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족관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전원이 연결됐고 이 때문에 과부하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부하가 걸리면서 단락과 함께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생선이나 상품을 담기 위한 스티로폼·플라스틱 비품에 옮겨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 점포와 가연성 소재의 물품으로 옮겨 붙었고 슬래브 재질의 낮은 천장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이 전기 누전 때문인지, 아니면 과부하 때문인지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것”이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소방서가 5억2000만 원으로 추정하면서 상인들이 불탄을 터뜨리고 있다. 소방당국은 4곳은 전소했고 나머지는 그을리거나 점포 일부가 타는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 규모를 5억2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점포 1곳당 450여 만 원으로 상인들 사이에 피해 규모가 너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설을 앞둔 대목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영업을 못 하게 됴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피해 등을 생각하면 이번 화재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시설 부분 피해만 계산해도 대략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상품 훼손 등 추가 피해와 영업 피해 등을 고려하면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삶의 터전이 소실된 여수 수산시장 상인(상인회장 김상민)들은 16일 여수수산시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인들은 이날 오전 화재현장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상인회 소속 7명을 비롯한 여수시·중소기업청 3명 등 총 10여 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시장과 가장 가까운 공터에 임시 영입소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녘 17:45
날출 22:48
날짐 10:40

평년기온 회복

당분간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 유의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6	보성	맑음	-7/7
목포	맑음	-3/5	순천	맑음	-4/8
여수	맑음	-1/6	영광	맑음	-7/4
나주	맑음	-7/5	진도	맑음	-1/5
완도	맑음	-2/6	전주	맑음	-6/4
구례	맑음	-9/6	군산	맑음	-6/4
강진	맑음	-5/7	남원	맑음	-9/6
해남	맑음	-5/5	흑산도	맑음	2/5
장성	맑음	-7/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생활지수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관심

한발 물러선 한파…당분간 평년기온

오늘부터 낮 기온이 평년수준을 되찾는 등 지난 며칠간 맹위를 떨치던 한파가 한 발짝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최저 -5~0도, 최고 4~7도)을 되찾을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

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순천, 광양, 여수, 구례 등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을”

광주 의약 5단체 성명

지난해 8월 환자가 여성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의약단체들이 성명을 내 화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광주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의약 5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에서 “가해자는 분명한 살인죄도를 갖고 의료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도 우발적·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7년형에 그쳤다”며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여대 교육부 감사

10건 주의·경고 조치

광주여대가 자격이 없는 교원을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퇴직한 임용제한 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신규 임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송강학원 및 광주여대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 감사(회계) 결과, 10건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경고·주의 처분 등을 받았다.

송강학원의 경우 이사장에게 매월 100만원씩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9명이 경고를 받았고 학교 교육용도 기부금(82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 후 법인 운영경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상영업, 빨라야 4월

복구작업 시작까지도 한달 걸려…명절 앞 상인들 ‘막막’

지난 15일 새벽 화재로 점포 117개가 불에 탄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작업이 빨라야 4월 초나 시작되고, 정상영업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상인들은 설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수시는 이번 화재로 1층 58개 점

포 내부가 전소됐으며 23개 점포는 일부소실, 35개 점포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고 2층도 1개 점포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피해 현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잔여물 처리, 현장감식 그리고 보험사의 피해조사 등으로 인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우선 보험사의 손해사정 조사가 끝난 후 지붕 붕괴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잔여물 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 일정대로라면 여수 수산시장 상가 복구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여수수산시장상인회장은 “최대한 빨리 복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복구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 3개월, 늦으면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여수 거문도 2.7 지진

여수시 거문도 근처 바다에서 규모 2.7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나지 않았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7분께 여수시 거문도 남남동쪽 47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상 규모 3.0 이하 지진은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도 “이날 지진 관련 피해신고나 지진동 감지 신고 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백범대우빌딩
남구주월동
500m
대신프리모가발